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이에림* · 박지선**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즉,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부일 때와 양부일 때, 더불어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와 무직일 때, 피고인 비난과 반성의 진정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20-50대의 총 240명(남성 112명, 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여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보다 무직일 때 상황 영향력을 더 높게 판단하여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6.30.2.101>.

❖ 주제어 : 아동학대, 사회경제적 지위, 가-피해자 관계, 사회지배경향성, 피고인 비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 교신저자,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I. 서론

2021년 1월 양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보도되고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이목이 쏠리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배소은·곽대훈, 2021). 당시 뉴스 기사의 댓글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인식은 ‘입양’이 학대와 관련이 높은 키워드로 드러나며 해당 사건이 입양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배소은·곽대훈, 2021). 이러한 현상은 위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다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들의 보도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보도들의 절반 가량에서 가해자는 피혈연 관계인 부모였다(김지혜 외, 2013). 그러나 실제 2020년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가족 유형 중 친부모 가정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입양가정은 단 한 건으로 2.3%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언론보도는 현실성 있는 문제 집단보다 소수 일탈자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다수가 친부모인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실을 왜곡시켜 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지혜 외, 2013).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도 나타나는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입양 가정에 큰 상처를 주며, 추후 입양 결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배소은·곽대훈, 2021). 그러나 이러한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유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익중 외, 2016).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배경으로 집안의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이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지혜 외, 2013).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이나 경제 형편이 언급된 경우 실형 비율이 70% 정도로, 다른 양형요소에 비해 실형을 처분받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6).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가해자를 비롯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와 국가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배소은·곽대훈, 2021). 이처럼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다른 판결과 이에 대한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형태, 즉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일반인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인의 판단을 살펴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

도이다. 그간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조은경·박지선, 2021; Sidanius et al., 2006; Yamawaki et al., 2012). 그중에서도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은 사회 집단 간 불공평과 위계에 대한 태도로, 소수집단이나 약자에 관한 다양한 태도 및 편견과 연관되어 있다(Zhao et al., 2020). 특히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범죄자에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Hess et al., 2012; Perkins & Bourgeois, 2006),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피고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회지배경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범죄사건에 대한 판단 중 하나인 처벌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의 관점에는 응보적 관점과 함께 미래지향적이며 예방적 관점이 함께 작용한다(김재희, 2020).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를 반성의 유무, 재범의 우려 등을 통해 고려해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이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같은 요인들을 판결문에서 주요하게 언급한다는 사실이 나타난 바 있다(이세원, 2017; 정익중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보적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인 피고인 비난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범죄를 인식하고 양형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야기 모델

이야기 모델(the story model)은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형이다(김은영, 2013). 이야기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람들은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며

해당 사건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판결을 위해 양형선택 사항을 고려하며 대안적 판결에 대해 숙고한 뒤, 피고인에게 가장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 도달한다(김은영·윤민우, 2013; Pennington & Hastie, 1986; Pennington & Hastie, 1993).

이야기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여겨지는 부분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김은영·윤민우, 2013). 평결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배심원들은 다른 단계에 비해 구성하는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Pennington & Hastie, 1986). 이러한 이야기는 주어진 정보, 즉 증거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단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추정을 이용해 만들어진다(김은영·윤민우, 2013; Pennington & Hastie, 1993). 즉 판단자들은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본 증거를 해석하고 개인적 지식이나 추론을 더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완성된 이야기 형식으로 사건을 구성한다(Pennington & Hastie, 1986).

이와 같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태도, 다른 경험, 사회적 세상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진 판단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Pennington & Hastie, 1986). 판단자의 태도,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 기존에 지니고 있던 사고 및 태도를 바탕으로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영·윤민우, 2013; Pennington & Hastie, 1986). 만일 판단자들이 아주 적은 요소의 차이만으로도 다른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이는 피고인을 다르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 관계(친/양부모 가정) 및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건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피고인-피해자 관계에 따른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됐다(Davies et al., 2013).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성범죄부터 스토킹,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박연주 외, 2017; Yamawaki et al., 2012). 예를 들어 혼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보다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비난받고(Yamawaki et al., 2012),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성범죄 가해자는 지인이거나 낯선 사람인 가해자에 비해 덜 비난받는다(Bieneck & Krahe,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관찰된다(박연주 외, 2017; Davies et al., 2013). 아버지에 의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지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만, 낯선 사람에 의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는 가해자가 덜 비난받고, 피해 아동의 진술신빙성이 더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Davies & Rogers, 2009). 이러한 결과는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친권자나 양육자라는 것이 판결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박연주 외,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성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et al., 2013). 즉, 친부에 비해 계부가 성학대를 저질렀을 때 사건의 심각성 및 피해자의 신뢰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Davies et al., 2013). 그러나 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를 생물학적 부모나 계부, 혹은 양부로 나누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신체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현 시점에서(배소은·곽대훈, 2021), 친/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고인 비난 등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단자들이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상해 및 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더 높게 평가하며(최승혁·허태균, 2020; Nadelhoffer, 2006), 고의에 대한 평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alle & Nelson, 2003). 즉 피고인이 범행이 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수록 피고인에

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다(홍세은 외, 2018; Darley & Pittman, 200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Nadelhoffer, 2006; Uhlmann et al., 2015)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과 엄중한 양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홍세은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 의도, 즉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나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판단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여러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행됐다(홍세은 외, 2018). 이러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박혜경, 2015). 즉,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메타 분석과 실험 연구를 통해서 지지된 바 있다(Devine & Caughlin, 2014; Farnum & Stevenson, 2013).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Espinoza & Willis-Esqueda, 2015). 국내 연구에서는 국외와는 반대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강해지기도 하였으나, 범행 의도가 불확실할 때만 그 영향이 나타났다(홍세은 외, 2018).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성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유무에 있어서도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피고인의 특성과 범죄 원인, 재범 위험성 등의 판단에 관여하기도 한다(Farnum & Stevenson, 201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피고인은 신뢰도, 도덕성, 지성, 호감도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이 낮게 평가되고, 게으르거나 공격적인 특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Espinoza et al., 2015). 그러나 아직 아동학대에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피고인의 생활고나 가정형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실형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정의

중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과 피고인의 반성에 있어서의 진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한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보다 낮은 경우 범죄자의 성격보다 범죄자가 처한 상황이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더불어 범죄자를 덜 비난하고 재범 위험성이 더 낮다고 평가하였다(최승혁·허태균, 2012).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범죄자에 대한 비난 등의 평가에 범죄자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판단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피고인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을 유추하는 데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Uhlmann et al., 2015), 이것이 피고인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판단 차이에 있어 피고인이 처한 상황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을 판단할 때는 사회가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형량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에는 이처럼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등 개인의 태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최승혁·허태균, 2012).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피고인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판단자의 태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태도 가운데 특히 소수집단이나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엄중한 처벌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배경향성(Crawley & Suarez, 2016)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4. 사회지배경향성에 따른 판단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 집단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위계에 따라 불공정이 필연적이라 보고 이를 선호하는 태도를 의미하며(Pratto et al., 1994),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범죄자 처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eering & Leone, 2019; Kimmelmeier, 2005).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간 위계를 유지하고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사용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Heering & Leone, 2019). 따라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공권력의 행사부터 사적인 체벌까지 다양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Perkins & Bourgeois, 2006). 일례로 아동학대 사건 판단에서 벨트나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를 때린 사건을 학대가 아니라 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았다(Hess et al., 2012). 사회지배경향성은 범죄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 관련 판단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용의자의 사망에서 용의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고(Perkins & Bourgeois, 2006), 전반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더 선호하였으며,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Sidanius et al., 2006). 또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피고인에 적절한 처분으로 불구속에 비해 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Crawley & Suarez, 2016; Taillandier-Schmitt & Combalbert, 2017).

이때 사회지배경향성은 피고인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도 한다(Kemmelmeier, 2005; Taillandier-Schmitt & Combalbert, 2017). 피고인이 백인일 때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덜 심각한 형량을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지만, 피고인이 흑인일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형량을 더 무겁게, 재범 위험성은 더 높게 판단하였다(Kemmelmeier, 2005). 또한 프랑스에서 흑인 피고인을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류 문화인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는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감경 사유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원형 문화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감경 사유를 덜 참고하였다(Taillandier-Schmitt & Combalbert, 2017). 이처럼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은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 집단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지배경향성과 다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사회지배경향성의 효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Heering & Leone,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을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 다른 피고인의 특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은 53.3%를 차지하는 128명이었으며, 남성은 46.7%를 차지하는 112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t(238) = -.22, p = .82$),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21세($SD = 10.79$), 남성의 평균 연령은 39.53세($SD = 11.16$)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안내문을 읽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뒤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네 가지 조건은 제공받는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시나리오는 2 × 2(피고인-피해자 관계: 친부 vs. 양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호사 vs. 무직)로 조작하였으며 시나리오의 내용을 연구 참가자가 적절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별, 직업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매개변인인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과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 영향력에 대해 응답한 뒤, 종속변인인 피고인 비난, 피고인 반성/후회의 진정성, 피고인 개선/변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을 묻는 16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과 연령을 질문하는 문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3. 연구 변인

가. 독립변인: 피고인-피해자 관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조건으로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한 시나리오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친부와 양부인 경우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피고인의 직업이 변호사와 무직인 경우로 각각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인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무작위로 제공받았으며 사용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35세, 남성)은 [변호사로 직장 내 업무 관련 문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취업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아들/ 입양한 아들인] 생후 10개월째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는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수회 넘어뜨리다가 침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울음을 그친 피해자를 목욕시킨 다음 잠을 재우려 하던 중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부채질을 해주다가, 약 한 시간 반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친아들/ 아들을] 잃게 되어, 한없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사회지배경향성

연구 참가자들의 사회지배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Pratto 외(1994)가 개발한 사회지배경향성 척도 16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7점 리커트(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 *전적으로 동의한다*)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본 연구에서 .666이었다.

다. 매개변인: 범행 고의성, 상황 영향력

범행 고의성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1 = *전혀 고의적이지 않다* - 7 = *상당히 고의적이다*)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상황의 영향력은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을 둘러

싼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1 = 전혀 영향이 없다 - 7 =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라. 종속변인: 피고인 비난, 피고인 반성 진정성, 피고인 개선 가능성

종속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우선 피고인 비난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비난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은 “이 사건 피고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부분에 있어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판단하게 하였다. 피고인 개선 가능성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앞으로 개선되거나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앞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높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각각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3.5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macro 3.5 버전의 model 4를 이용하여 피고인-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범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고인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의 영향력의 매개효과 역시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ROCESS macro 3.5 버전의 model 1을 활용하였다.

IV.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주를 저질렀다고 지각할수록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낮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더 많이 비난하였고,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이 미친 영향력을 크게 판단할수록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할수록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피고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1. 범행 고의성	-					
2. 상황 영향력	-.13*	-				
3. 피고인 비난	.51***	.02	-			
4. 피고인 반성 진정성	-.54***	.25***	-.49***	-		
5. 피고인 개선 가능성	-.37***	.17*	-.39***	.58***	-	
6. 사회지배경향성	-.11	-.09	-.18**	.05	-.00	-
평균	4.73	5.27	6.27	3.43	3.55	2.99
표준편차	1.55	1.45	1.01	1.64	1.53	.87

* $p < .05$, ** $p < .01$, *** $p < .001$

2.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판단 사이 범행 고의성의 매개효과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 범행 고의성 판단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범행 고의성 판단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그림 1]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b = .450, SE = .199, p < .05$), 피고인이 범행에 더 고의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피고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였다($b = .333, SE = .037, p < .001$). 그러나 매개변인인 범행 고의성을 통제하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 = -.117, SE = .114, n.s.$).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 혹은 양부인지가 피고인 비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여 피고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결과가 나타나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범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반성/후회의 진정성 판단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부인 경우 친부일 때보다 피고인의 고의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b = .450, SE = .199, p < .05$), 범행 고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피고인의 반성/후회에 대한 진정성을 낮게 평가하였다($b = -.562, SE = .058, p < .001$).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고인의 반성/후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매개변인인 범행 고의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자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 = -.081, SE = .181, n.s.$).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 혹은 양부인지가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반성과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더 낮다고 평가되는 범행 고의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개선/변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 범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2>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관계가 범행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450, SE = .199, p < .05$),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수록 피고인의 개선이나 변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b = -.364, SE = .060, p < .00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통제하자 피고인의 개선/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b = -.028, SE = .186, n.s.$),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부일 때 친부일 때에 비해 피고인이 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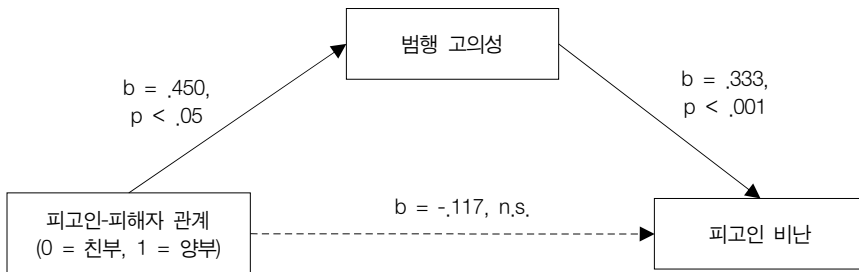
다고 지각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개선/변화 가능성을 더 낮게 판단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판단 간 범행 고의성의 매개효과

경로	Effect	Boot SE	LLCI	ULCI
총효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비난	.033	.130	-.224	.290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반성 진정성	-.333	.210	-.748	.081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개선 가능성	-.192	.198	-.581	.197
직접효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비난	-.117	.114	-.341	.108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반성 진정성	-.081	.181	-.436	.275
피고인-피해자 관계 → 피고인 개선 가능성	-.028	.186	-.395	.339
간접효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 범행 고의성 → 피고인 비난	.150	.072	.023	.301
피고인-피해자 관계 → 범행 고의성 → 피고인 반성 진정성	-.253	.116	-.491	-.034
피고인-피해자 관계 → 범행 고의성 → 피고인 개선 가능성	-.164	.074	-.313	-.020

피고인-피해자 관계(0 = 친부, 1 = 양부)

[그림 1]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비난 간 범행 고의성의 매개모형



3.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고인 판단 사이에서 상황 영향력의 매개효과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고인에 대한 판단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이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은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의 영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매개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피고인의 반성/후회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에 비해 무직일 때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b = .542, SE = .184, p < .01$),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할수록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에 있어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b = .274, SE = .072, p < .001$). 그러나 매개변인인 상황 영향력을 통제하자 사회경제적 지위는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의 판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 = .118, SE = .209, n.s.$). 즉,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피고인이 무직일 경우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에 대한 진정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상황 영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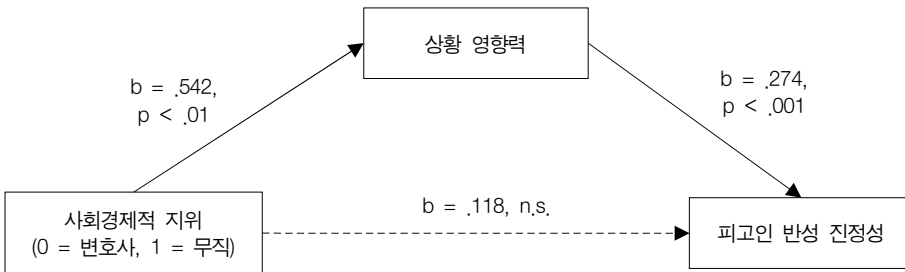
피고인의 개선/변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에서 피고인이 처한 상황 영향력에 대한 판단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에 비해 무직일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이 미쳤을 영향력을 더 크게 판단하였고($b = .542, SE = .184, p < .01$), 상황 영향력을 더 크게 판단할수록 피고인이 개선되거나 변화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b = .164, SE = .069, p < .05$). 이때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미치는 직접효과는 매개변인인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통제하자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 = .486, SE = .199, n.s.$). 즉,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피고인 개선/변화 가능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피고인이 무직일 경우 사건 발생에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의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변화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상황 영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고인 판단에서 상황 영향력의 매개효과

경로	Effect	Boot SE	LLCI	ULCI
총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 피고인 반성 진정성	.267	.211	-.149	.682
사회경제적 지위 → 피고인 개선 가능성	.275	.197	-.113	.666
직접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 피고인 반성 진정성	.118	.209	-.293	.530
사회경제적 지위 → 피고인 개선 가능성	.186	.199	-.205	.578
간접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 상황 영향력 → 피고인 반성 진정성	.149	.064	.038	.288
사회경제적 지위 → 상황 영향력 → 피고인 개선 가능성	.089	.053	.007	.208

사회경제적 지위(0 = 변호사, 1 = 무직)

[그림 2]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 간 상황 영향력의 매개모형



4. 피고인 비난에 대한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사회지배경향성과 피고인 판단 간 관계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피고인을 비난하는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지배경향성의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 및 [그림 3]과 같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경우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직인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무직인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에 따라 피고인 비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피고인을 덜 비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피고인 비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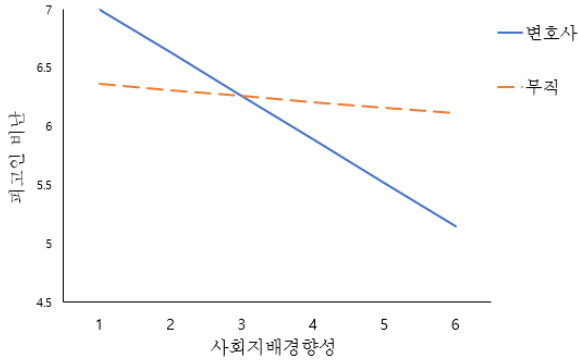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CI)	
						LLCI	ULCI
피고인 비난	사회지배경향성(A)	-.213	.074	-2.884	.004	-.358	-.067
	사회경제적 지위(B)	-.005	.128	-.038	.970	-.257	.247
	(A) × (B)	.318	.148	2.152	.032	.027	.608

사회경제적 지위(0 = 변호사, 1 = 무직)

<표 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조건부 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경로 : 사회지배경향성 → 피고인 비난					
	b	SE	t	p	95% 신뢰구간(CI)	
					LLCI	ULCI
변호사	-.372	.107	-3.474	.001	-.582	-.161
무직	-.054	.102	-.531	.596	-.254	.146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단순 회귀선



V.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피고인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먼저 친부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지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더 강한 비난을 하며 피고인의 반성과 후회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나 기사 댓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김지혜 외, 2013; 배소은·곽대훈, 2021)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피고인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높게 지각하게 만들어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보다 무직일 때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이 사건 발생에 미친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실제 법원 역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생활고나 가정형편을 언급하며 온정적 태도를 보

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정익중 외, 20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거쳐 온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이야기 모델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판단자들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성하는 이야기가 다르며, 그 과정에서 상황의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무직일 때 판단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해 피고인이 둘러싼 환경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에 맞게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죄사건 발생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과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 등 형사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더불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무직일 때에는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에 따른 피고인 비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 약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사회적 위계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있는 개인을 판단할 때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아질수록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Kemmelier, 2005). 즉 기존에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가혹한 판단과 함께 연구되었던 사회지배경향성이, 사회 지배층에 대한 관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사회 집단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질적 자원을 기초로 정의되는데, 이는 수입과 같은 경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포함해 측정되고 인식되는 변인이다(Kraus et al., 2012).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작하여 그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아동학대 외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한 사회지배경향성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단으로 이어졌으나, 국외에서 뺑소니 사건이나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판단할 때는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한 판단자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Crawley & Suarez, 2016; Taillandier-Schmitt & Combalbert, 2017),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차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양부모에 의한 사망 사건은 매우 적지만(보건복지부, 2021), 본 연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부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더욱 비난하며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이나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본 결과는 10년 넘게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어 온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피고인에 대한 비난과 개선 가능성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사건 판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단자들이 범죄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추후 범죄사건 판단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사건의 행위자, 즉 피고인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만드는지 연구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서 사회지배경향성과 같은 개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추후 개인의 태도가 범죄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 논문

김은영 (2013). “이야기모형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의 검증연구”. *형사정책연구*, 24(1), pp.361-392

김은영·윤민우 (2013). “배심원들의 살인사건재판평결에 관한 경험적 실험연구-이야기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5(4), pp.633-655.

김재희 (2020). “피해의 회복과 회복적 책임 - 양형인자로써 회복의 의미”. *형사법연구*, 32(1), pp.33-62.

김지혜·정익중·이희연·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pp.131-154.

박연주, 한창근, 조원희 (2017).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8), pp.47-76.

박혜경 (2015).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1), pp.53-69.

배소은·곽대훈 (2021).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한국범죄학*, 15(2), pp.31-62

이세원 (2017).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8(2), pp.125-157

정익중·최선영·정수정·박나래·김유리 (2016).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8(2), pp.131-160.

조은경·박지선 (2021).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형사정책연구*, 32(4), pp.63-90.

- 최승혁·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pp.127-140.
- 최승혁·허태균 (2020). “그들이라면...그럴만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pp.55-74.
- 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pp.101-118.
- Bieneck, S. & Krahe,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pp.1785-1797.
- Crawley, D. & Suarez, R. (2016). “Empath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ortality salience, and perceptions of a criminal defendant”. *SAGE Open*, 6(1), 2158244016629185.
- Darley, J. M., & Pittman, T. S. (2003). “The psychology of compensatory and retributive jus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pp.324-336.
- Davies, M. & Rogers, P. (2009). “Perceptions of blame and credibility toward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Differences across victim age,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and respondent gender in a depicted ca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8(1), pp.78-92.
- Davies, M., Patel, F., & Rogers, P. (2013). “Examining the roles of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and emotional closeness in judgments toward a depicted child sexual abuse ca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5), pp.887-909.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2), pp.109-134.
- Espinoza, R. K. & Willis-Esqueda, C. (2015). “The influence of mitigation evidence, ethnicity, and SES on death penalty decisions by European

- American and Latino venire pers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1(2), pp.288-299.
- Espinoza, R. K., Willis-Esqueda, C., Toscano, S., & Coons, J. (2015). “The impact of ethnicity, immigration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pp.197-216.
- Farnum, K. S. & Stevenson, M. C. (2013). “Economically disadvantaged juvenile offenders tried in adult court are perceived as less able to understand their actions, but more guilty”, *Psychology, crime & law*, 19(8), pp.727-744.
- Heering, M. S. & Leone, L. (2019). “Power moderates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punishment an experimental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122(1), pp.201-218.
- Hess, C. A., Gray, J. M., & Nunez, N. L. (2012). “The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3), pp.2728-2739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pp.546-572.
- Kemmelmeier, M. (2005). “The effects of race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in simulated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5), pp.1030-1045.
- Malle, B. F. & Nelson, S. E. (2003). “Judging mens rea: The tension between folk concepts and legal concepts of intentionality”.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1(5), pp.563-580.
- Nadelhoffer, T. (2006). “Bad acts, blameworthy agents, and intentional actions: Some problems for juror impartia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9(2), pp.203-219.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pp.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Reasoning in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Cognition*, 49(1-2), pp.123-163.
- Perkins, J. E. & Bourgeois, M. J. (2006). “Perceptions of police use of deadly for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 pp.161-177.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pp.741-76
- Sidanius, J., Mitchell, M., Haley, H., & Navarrete, C. D. (2006). “Support for harsh criminal sanctions and criminal justice beliefs A social dominance perspective”. *Social Justice Research*, 19(4), pp.433-449.
- Taillandier-Schmitt, A. & Combalbert, N. (2017). “Influence of acculturation strategies on the judgement and punishment of an offender of North African descent”. *Psychology, Crime & Law*, 23(9), pp.859-873.
- Uhlmann, E. L., Pizarro, D. A., & Diermeier, D. (2015).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moral judg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1), pp.72-81.
- Yamawaki, N., Ochoa-Shipp, M., Pulsipher, C., Harlos, A., & Swindler, S. (2012).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myths, victim’s relationship with her abuser, and the decision to return to her abus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6), pp.3195-3212.
- Zhao, K., Faulkner, N., & Perry, R. (2020).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willingness to carry out three domains of socially inclusive behaviors in a public campaig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0(1), pp.264-286.

Judgment of Child Abuse by Offender's Socioeconomic Status and Relationship to the Victim

Yerim Lee · Jisun Park

The study explored if judgment of child abuse differed by offender's socioeconomic status and relationship to the victim. We investigated if judgment of offender blame, sincerity of regret, and possibility for improvement differed by offender's socioeconomic status and relationship to the victim. We also examined if the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the offender judgment was moderated by offender's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a sample of 240 people(112 males, 128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9,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ffect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 on offender judgment was mediated by the people's perceived level of offense deliberateness, and the effect of offender's socioeconomic status on offender judgment was mediated by the people's perceived level of power of situation. Additionally, for people with strong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judgment of offender blame was less for an offender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Key words: child abuse, socioeconomic statu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ffender blame